

치 사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나아가 전 세계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전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제8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의 영예로운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열기를 더해가는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은 대중들에게 불교문화가 지닌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일상 속에서 한국전통·불교문화의 정신적 가치를 드높이는 중심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와 전통문화 콘텐츠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한 출품작들은 하나하나마다 정신의 삶이 투영되고 그 가치를 함께 나누겠다는 정진의 마음 또한 가득합니다.

나아가 전통문화가 생생하면서도 현대인의 일상에서 늘 함께 할 수 있는 창의성은, 전통과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을 넓게 확장하는 소중한 방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찰에서 문화적 감동을 느끼는 것은 천년의 문화와 민족의 삶이 고스란히 스며있기 때문이며, 불교문화가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의 작품 또한 감동으로써 현대인을 가치 있고 풍성한 삶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불교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위해 진력을 다해주신 작가 여러분께 거듭 축하를 드리며, 문화콘텐츠의 참신한 미래를 위해 소중한 마음으로 심사와 후원을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결실들이 우리 사회와 현대인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주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0(2016)년 10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